

8일~9월6일 기호부르크성, 10월 부르크쿤슈타트와 뮌헨 갤러리

서양화가 한희원 판화작가 이민 독일 순회전

누군가의 추억이 담겨 있을 정감어린 양림동 골목길, 생을 노래하는 이 세상 모든 연주자들의 아련한 모습.

서양화가 한희원 작가와 이민 판화 작가가 독일의 유서 깊은 고성과 갤러리 등에서 독일 순회전을 진행 중이다. 두 작가의 작품전은 지난 8일부터 오는 9월6일까지 독일 쉬슬리츠 지역 기호부르크성에서 열리고 있으며 10월에는 부르크쿤슈타트와 뮌헨 갤러리에서 각각 3인전과 개인 초대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독일 뮌헨 두루 두루 갤러리(Duru Duru Gallery) 주최로 열리고 있는 이번 고성 전시에는 두 작가를 비롯해 8명의 한국 작가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희원 작가는 별, 바람, 나무, 사람 등을 소재 삼아 두터운 질감과 시적 표현이 어우러진 작업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작가다. 이번 독일전에는 색소폰, 아코디언, 바이올린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희로애락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근작과 풍경 등 24점을 출품했다.

광주 출신으로 조선대·일본 다마 미술대학 판화 석사과정을 거쳐 현재 서울에서 활동 중인 이민 작가는 일본 목판화 기법을 서구 양식과 결합한 자신만의 '판타블루' 기법을 통해 다양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이증섭장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선정돼 제주에 머물며 제주 풍경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독일전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모두 '양림동 연작'이다. 세월의 흐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양림동 연작 99' 점을 제작하고 전시회도 가졌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양림동의 사계와 밤과 낮 풍경을 따스한 시각으로 담아낸 4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독일 전시는 두루두루 갤러리 김미애 관장의 초대로 이뤄졌다. 한인 교포로 독일인과 결혼한 김 관장은 외국 작가의 작품 밀러로 활동하다, "왜 고국의 작가들은 소개하지 않느냐"는 주변의 말을 듣고 5년 전부터는 한국 작가들을 독일에 알리기 위해 직접 한국을 찾아 발로 뛰며 작가를 섭외하고 있다.

먼저 인연을 맺은 건 이민 작가로 지난해 4월부터 이번 전시를 준비해왔다. 한희원 작가의 경우 지난해 8월 직접 광주 양림동을 방문, 작품을 보고 초대를 결정했다.

고성 전시를 마치고 이어지는 부르크쿤슈타트 프루셔 갤러리에서는 두 사람을 포함, 3인전이 진행되며 두루두루갤러리에서는 각각 개인전을 진행한다. 작가를 초청한 두루두루갤러리 측은 판매 추이를 지켜보며 프랑스 등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1년여간 두 작가의 작품을 유럽 순회전 형식으로 선보일 계획도 갖고 있다.

한희원 작가는 "미술관을 방문했던 갤러리측에서 요즘 작업중인 인물화에 관심이 많아 그 작품 위주로 보냈다"며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전시 기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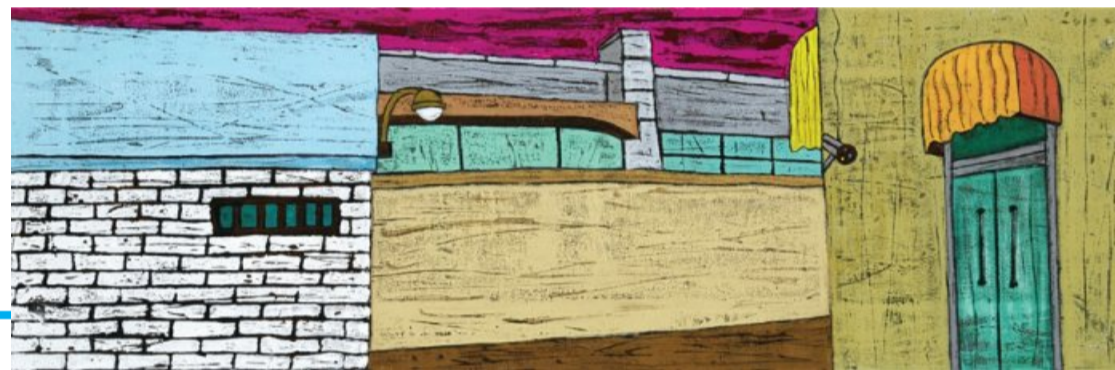


한희원 작 '색소폰 부는 남자'

독일에 머물 예정이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민 작가는 "양림동 풍경만을 담은 작품으로 독일에서 전시회를 열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독일전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민 작 '7월 저녁해질녘'

러시아 발레와 음악이 함께...광주시향·발레단 협연 9월16일 문예회관

광주시립교향악단의 기획공연 'GSO 오티움 콘서트' 다섯번째 공연이 오는 9월 16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두 차례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의 제목은 러시아 댄스(Russian Dance)이며, 광주시향 예술감독 홍석원의 지휘로 러시아 발레 음악의 매력을 선보인다. 특히 광주시립발레단이 무대에 서며,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과 스트라빈스키의 '불새(1919 Ver.)'를 최재태 예술감독의 해설로 진행한다

첫 무대는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의 주요 모음곡을 발레와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선보인다. 이 작품은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더불어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로 손꼽힌다. 섬세한 기교와



표현력을 자랑하는 작품으로 시립발레단의 주역 무용수가 출연한다. 이어 스트라빈스키의 '불새(1919 Ver.)'를 들려준다. '불새'는 스트라빈스키의 3대 발레곡 중 최초 발레 음악이자 출세작이다. 이반 왕자와 불새, 마왕 카체이가 등장하는 러시아의 옛 전설을 발레 음악으로 만든 것으로 다양한 연주 버전 중 1919년 버전으로 연주한다.

티켓은 전석 1만원(관람 8세 이상)이며,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문의 062-524-508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산천초목 '천년의 빛'

오창록 개인전, 12일~9월5일 광주문예회관



'나의 살던 고향은'

드넓은 그늘을 드리우는 커다란 나무, 자연 속에서 편안한 쉼을 누리는 사람들.

대한민국 산하의 아름다운 풍광과 사람들을 화폭에 담은 한국화가 오창록 작가 개인전이 12일부터 9월5일까지 광주문예회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지역 작가들을 후원하기 위해 진행한 전시 지원 공모전에 당선돼 마련된 기획이다.

'천년의 빛'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오창록 작가는 생명의 근원인 '나무'와 자연 풍경을 풀어낸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수백 년의 세월을 한 자리에 서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지켜보았을 '나무'는 작가에게 끝없는 사색의 시간을 제공하는 존재로, 새롭게 해석해 화폭에 풀어내고 싶은 작업의 동력이다.

전시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품어줄 것

같은 아름다움 나무와 시간이 멈춘 듯한 고즈넉한 정자의 모습, 사계절의 변화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풍경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담양 관방제림의 나무들과 사람들, 지리산 피아골의 풍경, 꽃피는 고향마을 풍경 등이다.

수묵을 이용해 담백하게 표현한 화면은 편안함을 전하며 고목의 투박한 껍질과 얽혀 있는 나뭇가지, 각각의 나무가 갖고 있는 특유의 결까지도 섬세하게 묘사한 작품은 농묵과 흰 여백의 대비가 어우러져 생명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

호남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오창록 작가는 개인전 21회, 단체전 300여 회 등에 참여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전남도 미술대전 대상, 광주시 미술대전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3일 '북구 소녀상 4주년 기억 콘서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지난 2017년 광주시 북구 주민 약 1600여 명과 단체 98개, 상가 200여 곳이 참여해 건립한 '북구 평화의 소녀상' (광주시 북구청 앞 광장·사진)이 4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해 북구소녀상평화인권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북구민의 힘! 십시일반의 기적! 건립정신을 계승하고 '친일적폐 청산, 한반도평화실현'을 염원하는 '북구 소녀상 4주년 기억콘서트'를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주제로 여러 분야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아픈 역사를 기억해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다짐의 자리로 꾸려진다.

공연에는 지역에서 활동중인 통기타 가수 최환종이 출연해 노래를 들려주며, 거리극 공연팀 '창극프로젝트 소리치다'가 창작극을 준비했다. 아울러 북구 지역 어린이들로 구성된 합창팀이 '서로서로 도와가며'를 선



보인다.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유튜브채널 '발전소tv' (또는 북구소녀상)을 통해 라이브로 방송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